

# 유통 중인 간편조리세트(밀키트)에 포함된 농산물의 잔류농약 모니터링

## I 연구목적 및 필요성

-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소비 환경의 변화와 편의성,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수요 증가에 따라 간편조리세트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임
- 간편조리세트는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한 제품임. 제품 내 농산물은 잔류농약 노출 위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, 산지조달, 도매시장, 중간도매를 통해 직접 공급되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산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
- 본 연구에서는 유통 중인 간편조리세트에 포함된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, 원료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잔류농약 기준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

## II 연구개요

- 기 간 : 2022. 9. ~ 2023. 9. (1년간)
- 대 상 : 간편조리세트에 포함된 농산물
- 향 목 : 잔류농약 478종

## III 연구결과

- 간편조리세트 내 농산물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소포장된 1kg 미만의 검체 실험에 사용하여 적합/부적합 판정이 불가했으며 해당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였다.
- 간편조리세트 제품 44건에서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포함한 제품은 10건(동일제품 포함)이었다. 제품 내 검사된 농산물 총 185건(37품목)에서 77건(41.6%)이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며 그 중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13건(7.0%)이었다.
- 기준을 초과한 품목은 건고추(3건), 근대(3건), 청경채(3건), 엇갈이배추(2건), 양파(2건)이었다. 근대와 엇갈이배추의 경우 제조일이 다른 동일 제품에서 연속적으로 농약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건고추, 청경채, 양파는 서로 다른 간편조리세트의 농산물에서 기준을 초과하였다. 그 중 양파 2건은 혼합포장된 청경채에 잔류된 농약이 이행되어 dinotefuran이 동일하게 검출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.
- 소비자는 간편조리세트 내 농산물의 잔류농약 노출 가능성을 인지하여 충분한 세척 후 섭취해야 하고, 관련기관은 간편조리세트 농산물에 대한 주기적인 수거검사를 시행하고 간편조리세트 제조업체 또한 납품 농산물의 자체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.

## IV 정책연계방안

- 식품안전관리지침 및 안전한 농산물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

## V 활용계획

- 유통 중인 간편조리세트에 포함된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
- 안전한 먹거리 이용 정보 제공을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욕구 충족